

지역혁신 성공 국제적 확산 구체화

전북대, 파리 기후아카데미와 협약 체결로 신재생에너지 교육시스템 구축 파리 소르본 누벨 대학·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 등과도 '맞손' 교환학생 확대·양방향 글로벌 하이브리드 강의 통해 교육 콘텐츠 공유

양오봉 총장과 조화림 국제협력처장 등 전북대 방문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유럽 주요 기관 및 대학들을 방문해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문단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주요 기관 및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대-전라북도-산업체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성공경험과 국제적 확산과 '전북 인재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먼저, 지역혁신 성공 경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들을 만나 전북대의 강점 분야인 스마트팜과 육종, 농기계 등의 특화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개도국 식량 및 기아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파리 기후아카데미(L'Academie du Climat)의 사라 알비(Sarah Alby) 원장을 만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라북도 주력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안보에 대



양오봉 총장과 조화림 국제협력처장 등 전북대 방문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럽 주요 기관 및 대학들을 방문해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①파리 기후아카데미와 협약 체결, ②베르사유 궁정 바로크 음악센터와의 협약 체결)

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컬처 분야를 실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정 바로크음악센터(이하 CMBV)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CMBV는 프랑스 대학령 때 소실된 프랑스 고유의 바로크 음악을 복원해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부흥을 실현한 기관이다.

이는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및 유학생들을 위한 K-컬처 스타트업 인 'JB엔터' 설립에 큰 도움을 주고



더불어 지역문화와 예술, 공연 콘텐츠의 국내외 사업화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총장 일행은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대학들과 손을 맞잡았다. 방문단은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최고의 외국어 대학교인 파리 소르본 누벨 대학교(파리대학),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INALCO)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확대와 양방향 글로벌 하이브리드 강의를 통해 양국 대학의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했

다.

최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영국 브루넬대학교와 세부적인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고, 퀴에라대학교와도 추후 학술교류 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학문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학생들의 지적 경험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프랑스의 대학들은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한국학 확산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생, 연구자 교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는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과의 직접적인 연계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랑스의 관리 콘 벨라라 불리는 Station F의 관계자들을 만나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오봉 총장은 "유럽의 주요 기관 및 대학들과의 교류는 전북대학교가 지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글로벌대학으로 단계적 나아가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본진정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학·학과 발전 기여 노력”

엔아이티, 국립군산대에 대학발전기금 1억 기부

(주)엔아이티(대표이사 김주환, 이강욱)가 대학 발전기금 1억을 국립군산대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강호 총장은 "군산시의 유망 중소기업인 (주)엔아이티의 발전기금 기탁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5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주)엔아이티는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이강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정승우 환경공학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엔아이티 이강욱 대표이사, 손찬일 관리이사가 참석했다.

이강욱 대표이사는 "그동안 국립군산대학교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회사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부해 대학과 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엔아이티는 군산 소룡동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 국립군산대학교와 폐수처리, 폐기물 재활용, 토양오염 방지기술 등의 공동 연구와 개발 국책사업 공동 참여, 학생 취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그동안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매출 305억원, 종업원 100여 명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폐기물소각처리사업, 폐수수처리사업 등 환경 분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도교육청, 오늘 과학교육 정책수립 토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6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도내 초·중·고 과학교육 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전북 과학교육 정책수립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진행된 전북 과학교육 정책 인식조사와 정책 제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 김을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2023년 과학교육 정책 현안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북 과학교육 및 융합교육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과학교사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분임별 토의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해 전북 과학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강 청의연계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전북 과학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원들의 제안을 과학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5~6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수에 앞서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이해력 향상 도모

도교육청,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 오늘까지 진행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5~6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 7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

청·접수·진단·지원·관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연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운영 사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이해 및 운영 △학교 구성원의 역할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교육복지중점학교와 연계학교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한 긍정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역할을 제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부에서는 신연옥 서울빙화초

교장, 이돈집 전 서울삼정중 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의 실제 모습과,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기초학력 부족, 심리정서 불안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분절적인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웹 환경 구축

10월까지 검사 실시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추진 계획을 수립, 그동안 진단검사를 위한 대상별 문항개발 및 웹 환경 구축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6월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문항개발협의체에서 검사 대상별 36문항을 구성·개발, 진단검사를 위한 웹 환경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각급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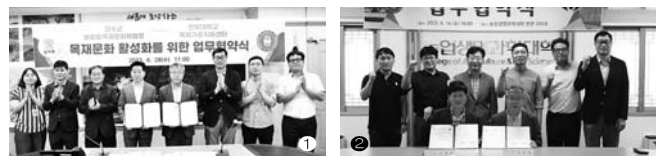
구성원에게 진단검사 실시를 안내할 예정이다.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는 학생(초4~고3),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별로 문항이 다르게 구성됐다. 초등학교생(4~6학년) 12문항, 중·고등학교생 12문항, 교직원 및 보호자 12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해 대상별 단계에 맞는 성인지 영역 및 하위요인을 반영했다.

또 진단검사 개인별 응답 완료 시 검사자의 영역별 성인지감수성 분석

그래프를 제공해 검사자 스스로의 성인지감수성 정도를 인식하는 자기점검의 기회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성인지 영역별 의식 개선 및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기 문예체감강좌장은 "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인권친화적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운영으로 성인지감수성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 및 학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①장수에서 열린 목재문화 활성화 협약식. ②무주에서 열린 협약식.

지자체와 목재 산업 발전·인재양성 긴밀 협력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 장수·무주군과 협약 체결 국립대 육성사업 일환 지역민 대상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는 지자체와 손잡고 목재 관련 산업 발전과 인재양성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목재가공지원센터는 최근 장수군, 무주군 등과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재 관련 인·물적 교류와 국가 공모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공동 추진, 목재 문화체험 프로그램 교류, 목재 전문인력 양성 등 목재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

축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목재 가공 역량을 지역민들과 공유 하지는 취지에서 매년 목공체험 행사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재가공지원센터는 국립대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장수군과 무주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과 함께하는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5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제19회 캡스톤 및 어드벤처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석대, 캡스톤·어드벤처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제19회 캡스톤 및 어드벤처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남현 총장과 이종서 차장은 성인지 영역별 의식 개선 및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기 문예체감강좌장은 "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인권친화적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운영으로 성인지감수성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 및 학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6개·진전 8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캡스톤 및 어드벤처디자인은 학부와 정 동안 배운 전공이론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키워도록 지원하는 정규 교과과정이다.

남현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동기부여는 물론 보다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